

‘광주역~송정역’ 철도 구간 활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통 100주년, 하루 30차례 통근열차 운행에 회당 10여명 불과 시민단체 “공공부지 활용” vs 광주시 “달빛철도 위해 유지해야”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광주 원도심을 가로지르는 ‘광주역~광주송정역’ 철도 구간을 공공부지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철도구간이 광산구·북구·서구 등 3개 구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부족한 도심 녹지와 문화시설 확보차원에서 광주역~송정역 구간을 녹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들은 개통 100주년을 맞아 노후화된 철도부지 활용 방안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그러나 광주역이 곧 개통될 달빛내륙철도와 광주~순천간 경전선의 시발역이 되는 만큼 이 구간의 철로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는 21일 “지난 1922년 운영을 시작한 길이 11.9km의 광주

역~송정역 구간 개통 100주년을 맞아, 철도부지를 공공부지로 새롭게 활용할 때가 됐다”며 “원도심 철도운행으로 시민이 겪는 불편함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철도부지를 공원 등 ‘푸른길’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지난 18일과 20일 이 구간을 열차와 도보·자전거로 둘러보며, 교통장애 요소와 위험요소들을 발견했다며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당장 광주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역이 달빛내륙철도와 광주~순천간 경전철의 시발역인 데다, 일대에는 3만여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오히려 강화가 필요한 노선이라는 입장이다.

광주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중흥동과 우산동

·신안동 등 광주역 부근에는 앞으로 3만여 가구가 입주하게 되는데, 이마저도 사라지면 교통인프라가 적은 광주도심 교통혼잡은 볼 보듯 뻔하다”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오히려 꼭 필요한 노선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이 구간을 오가는 통근열차 운영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폐선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광주역~광주송정역 구간은 매일 통근열차 30편과 무궁화·새마을호 20여 편 등 하루 평균 50편의 열차가 운행 중이다. 그러나 통근열차의 경우 하루 평균 이용객이 400명 수준에 머무르면서 운영 적자를 이유로 광주시가 한국철도공사에 매년 15억 원의 지원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이 구간은 통근열차뿐만 아니라 매일 무궁화·새마을호 20여 편 등 하루 평균 50편의 열차가 운행 중이다. 인구수가 늘고 지하철 2호선(광주역)이 개통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활용을 위해선 시가 철도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지역 정가 한 관



21일 오전 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에 도착한 통근열차에서 승객들이 하차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계자는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준비중인 정치 화화 등을 내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역~송정역 구간에 대해 트램이나 지하철 등을 내걸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복개하천 동계천 복원해야”

시민단체, 누문동 재개발 사업에 포함 촉구

광주시 복개하천인 동계천을 복원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광주시 북구 누문동 재개발 뉴스타이사업에 동계천의 복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광주시 도시계획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행복한 도시 만들기 ‘도시산책’은 성명을 내고 “뉴스타이사업 과정중, 동계천의 유로를 변경하는 대신 복원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동계천은 무등산 장원봉에서 발원해 양동복개사가 부근에서 광주천과 만나는 복개하천으로 지난 1982년 지산유원지에서 양동복개사가 아래 광주천 합류지점까지 모두 복개돼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하천의 위를 콘크리트 따위의 구조물을 이용해 덮어 복개한 동계천의 대략적인 경로는 무등산 기슭-지산동-동명동-장동-대인시장-북동-누문동이지만, 복개도로 밑으로는 지금도 동계천의 물줄기

가 각종 오수와 섞여 악취를 풍기며 흐르고 있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단체는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하천이 시민의 정서와 지역의 생활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맡게 된 전국의 많은 지역이 하천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광주의 도시·건축 행정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주거지 인근의 하천 복원은 시민에게 생태서비스(열선원화, 휴양, 생태관광 등)의 직접효과를 줄 수 있다”면서 “광주시는 동계천의 생태복원 가능성에 대해 단·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복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서구, 폐현수막 재활용 탄소중립 기여

포대로 제작 공동주택에 공급

광주 서구가 선거 관련 현수막 등이 집중 발생하는 3월부터 오는 6월까지 폐현수막 재활용 시범사업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에서 수거한 폐현수막을 재활용품 수거용 포대로 제작해 공동주택 등에 무상 공급한다.

3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치러졌고, 6월에는 도시 지방선거 이후 폐현수막이 다량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단속과 정비에 집중할 뿐 수거된 현수막의 재활용 방안에는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

현수막은 제작과정에서 사용하는 염료와 재질의 특성상 소각하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을 야기시킨다.

이에 따라 서구는 선거가 끝난 후 폐현수막을 전량 수거함과 동시에 서구 그린리더협의체의 참여 아래 재활용 포대로 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활용 포대는 공동주택 등에 배부해 재활용품 배출수거함 대용으로 이용하나, 자원회수센터의 폐건전지 등 보관용, 또는 가을철 낙엽 수거용 포대 등으로 사용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동구 ‘폐의약품 수거의 날’ 운영

25일부터 매월 넷째 주 금요일

광주시 동구가 오는 25일부터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을 ‘폐의약품 수거의 날’로 지정·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폐의약품은 일반 쓰레기로 매립하거나 하수구에 버리면 토양·수질오염은 물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돼 약국 또는 공공시설을 통해 수거 후 소각처리해야 한다.

동구는 그동안 관련 조례에 따라 동구보건소,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동네약국 등에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상·하반기로 나눠 일괄 소각처리해왔으나, 폐기물 수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거의 날을 지정하게 됐다.

앞으로 ‘폐의약품 수거의 날’로 지정된 매달 넷째 주 금요일은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폐의약품 수거함에 참여하기로 한 동네약국 등에 모인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또 동구보건소와 참여하는 동네약국의 협조를 통해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관리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각 가정에서 상비약 구매가 늘고 있어 폐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처리가 중요해졌다”면서 “수거 체계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건강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청년 창업 활성화 잔걸음

광주 북구, 전문기관 업무 협약

광주시 북구가 청년 창업공간 활성화에 나선다. 21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22일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테크노파크, 전남대 창업보육센터, 동강대 창업지원단 등 6개 기관과 ‘공공임대주택 청년 창업 공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북구를 비롯한 협력기관들은 청년창업가 발굴, 창업기업 초기 정착 및 성장 단계별 지원, 창업정보 및 활동 공유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대 흑염소산학연합협력단, 회원 농가 모집

전남대학교 전남흑염소산학연합협력단이 농촌진흥청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22년도 신규 회원농가를 모집한다.

전남대 전남흑염소산학연합협력단은 흑염소·염소 축산농가와 교류를 통해 고품질의 흑염소 고기 생산과 고부가가치 가공제품 개발을 위한 농촌진흥청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에 참여할 신규 회원농가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선정된 농가는 2023년 12월 23일까지 육종·번식, 사료·영양, 질병, 경영·유통 4개 분야별 기술 전문위원의 농장단위 현장컨설팅 및 기술지도, 기술·정보교류, 흑염소·염소 산업 관련 생산, 유통, 요식업 등 종사자 교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전남지역에서 흑염소·염소 축산업사육 허가를 받은 농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전남대학교 전남흑염소산학연합협력단은 전남 지역 흑염소·염소 사육농가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기술전문위원들의 선도기술지도, 현장컨설팅, 기술 및 정보교류 세미나, 워크숍, 흑염소 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지원 등을 맡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